



# 국내 기업 e-비즈니스 수준 꾸준히 향상

## “2006년 인덱스 50.1,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가 관건”

2006년 e-비즈니스 전체평균 인덱스는 50.1로 전년대비 2.8p 상승했으며 국내기업의 e비즈니스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었으며 제조업이든 비제조업이든 공정의 자동화 등 IT기술의 수요가 많은 업종은 지속적으로 e비즈니스 활용 수준이 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또한 대중소기업 e-비즈니스 수준의 격차는 여전하며 향후에는 중소기업의 e-비즈니스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한다고 조사되었다.

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110(수) 코엑스에서 「디지털미래전략세미나2007」을 개최하면서 국내 기업의 e-비즈니스 활용 수준을 조사한 2006년 e-비즈니스 인덱스(KEBIX: Korea E-Business IndeX)를 발표했다.

※ e-비즈니스 인덱스 : 국내기업의 e-비즈니스 현황과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e-비즈니스 관련 5개 분야(환경, 자원과 인프라, 프로세스, 인력, 가치)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종합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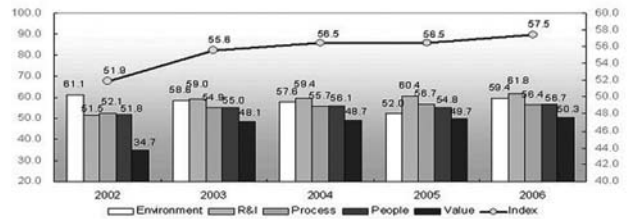
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6년 e-비즈니스 인덱스는 50.1로 전년(47.3) 대비 2.8p 상승했으며, 5개 분야 모두 고르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이번 조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.

- 기업의 e-비즈니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e비즈니스 환경 분야의 지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

※ 환경(6.3p ↑), 자원과 인프라(2.1p ↑), 프로세스(2.7p ↑), 인력(3.1p ↑), 가치(2.9p ↑)

## 〈'02~'06년 인덱스 추이(조사에 연속적으로 참여한 134개 기업대상)〉



● 국내기업의 e-비즈니스 성장단계를 4단계로 구분해보면, 대기업은 3단계인 ‘기업간통합’의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중소기업은 1단계와 2단계 사이의 중간수준으로 조사되었다.

※ e-비즈니스 성장단계 : 기능별효율단계(기능별 인프라구축) → 기업내통합(기업내 e-비즈니스 확산) → 기업간통합단계(기업간 e-비즈니스 활용) → 성숙기(기업내외간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)



